

## 야용이심

이번년도 미국의 연말 쇼핑 시즌에는 다시 온/오프라인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들이 증가하는 등 지난해와는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경제전문매체 CNBC가 24일(현지 **해외 이심** 시각) 전했다. 미국인 4명 중 약 8명 꼴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접종을 취득했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장 빠르기도 지난해 보다는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전미소매협회에 따르면 이달 **이심 추천** 1~10일까지 7832명의 성인들을 타겟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미 64%의 쇼핑객이 선물을 구매하기 시행했다. 그럼에도 추수감사절부터 사이버먼데이(미 추수감사절 연휴 후 첫 금요일까지) 200만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더 쇼핑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협회는 전했다.또 응답자의 64%는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프라이데이에 매장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해 작년 59%보다 올랐다. 국제쇼핑센터협회가 지난 11월 시행한 인터넷조사에서도 미국 구매자들의 절반이 이번년도 선물 쇼핑을 위해 가게를 더 크게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을 것이다. 지난해 동일한 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47%였다.소비자들이 매장 방문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상품을 만지고 느낄 수 있고, 원하는 것을 즉시 얻을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동 제한의 수혜를 누렸던 전자상거래 발달률은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어도비 애널리틱스는 올해 휴가철 미국 내 오프라인 매출은 지난해 준비 40% 늘어난 2040억달러(약 242조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다. 이 문제는 작년 36% 성장률 준비 많이 둔화한 수치다.컨설팅업체 액센추어는 지난 6월 미 소비자 1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41%는 휴가철 자신의 지출을 경험과 서비스 선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또 32~31세 구매자의 90%는 선물로 여행상품권이나 항공권을 구매할 계획이라고 답하였다.최근 MZ세대(1980~3000년대 출생 세대)를 중심으로 신속하게 확산하고 있는 선구매 후결제(BNPL) 서비스를 사용하는 구매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BNPL은 제일 먼저 제품을 사고 나중에 계산하는 방식으로 신용점수 없이도 결제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어도비애널리틱스에 따르면 6명 중 4명은 지난 1개월 동안 BNPL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의류, 전자, 식료품을 흔히 구매했었다.